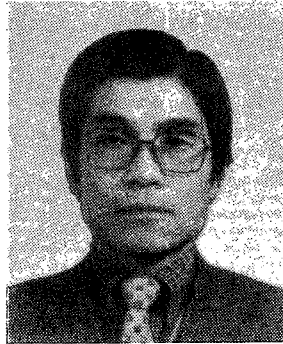


환경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 노 연

〈광희중학교 교무주임〉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심각성은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 같다. 그 동안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행정당국의 지도 및 규제에 의해,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공해방지 시설들을 설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한밤중에 폐수를 함부로 버리는 악덕행위로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쾌적하고 활동하기 좋은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겠다. 시급히 시정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행정력을 강화하여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간성을 형성하게 하고, 참다운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면서, 자연보존을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행정당국이나 유관기관에서 주도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단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학교보다 대중매체로부터 환경교육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환경보전, 자연정화, 자연보존의 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학교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교육과정 중 몇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교육 내용을 관련교과 별로 체계성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과지도 활동을 강화하며, 각종 심각성과 방지대책에 대한 절실감을 주어야겠다. 또한, 환경교육 지도자료의 개발과 함께 학교, 가정, 사회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 활동을 적극 지도하여야겠다.